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
및 학습 행태 비교:

2014년 생활시간조사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강선경 / 최윤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주 제 분 류

사회복지학

주 제 어

청소년 시간사용,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세대 간 불평등, 인터넷 중독, 생활시간조사

요 약 문

본 연구는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 및 학습 행태의 차이가 세대 간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중학교 1학년(13세)부터 고등학교 3학년(18세)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평일 일일 평균 인터넷 이용행태를 살펴 본 결과, 정보검색에는 약 15분을, 컴퓨터 및 모바일 게임은 약 54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시간을 학교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학교 내 학습은 평균적으로 약 211분, 학교 밖 학습은 약 56분, 스스로 학습에는 약 88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빗 회귀분석을 한 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학교 밖 학습'과 '스스로 학습'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한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정보검색 행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지위가 낮을수록 청소년의 인터넷·모바일 게임시간 비중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자녀는 오락지향적 인터넷 이용성향을 보이며, 인터넷·모바일 게임중독에 노출될 위험성이 증가됨을 시사한다. 또한 청소년의 학습 행태와 인터넷 이용 행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이러한 차이는 향후 세대 간의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불평등 재생산 기제가 개선되고 사회적 평등에 긍정적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 실천적, 정책적 차원에서 함의를 논의하였다.

접 수 일 : 2018년 5월 4일

심사완료일 : 2018년 5월 21일

게재확정일 : 2018년 5월 21일

생명연구 제48집 2018년 5월
 Studies on Life and Culture
 Vol. 48, May 2018, pp. 335~374
<https://doi.org/10.17924/solc.2018.48.33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 및 학습 행태 비교: 2014년 생활시간조사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강선경** / 최윤***
 서강대학교 / 서강대학교

I. 서론

우리 사회에서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은 더 이상 유효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전에는 개인의 노력, 특히 학력을 통한 사회에서의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하였으나 요즘 시대에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유리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층 간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고스란히 대물림 되는 형태까지 보이며 ‘금수저, 흙수저’ 이슈도 가세가 되고 있다. 계층 간 불평등을 논의할 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내용 중 하나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학력의 연관성이다.¹⁾ 사회경

* 본 논문은 2017년 한국연구재단(과제번호 NRF-2017S1A5B8057479)의 지원을 받아

제적 특성이 불평등과 관련 있다는 것은 당연히 이해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교육수준 및 학력 역시 계층 간 불평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국외와 비교하였을 때 한국의 불평등 논의에서 학력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이유는 교육을 통하여 계층 간 불평등을 극복하였던 과거부터 이어지는 고유한 특성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학력이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한 개인의 학력성취는 개인차원의 노력에 부차적으로 부모의 자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특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학력 형태가 자녀에게 대물림 되는 것에 기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자녀의 학업 형태 및 성취 사이의 관계를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대체로 학업에 대한 부모의 비용투자의 차이에서 그 차이가 발생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²⁾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학업 형태와 성취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최근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서는 ‘시간’이 새로운 요인

수행된 연구임.

** 주저자 *** 교신저자

- 1) 장상수, 「학력성취의 계급별·성별 차이」, 『한국사회학』, 제38집 제1호, 2004; 김은정,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교육비, 부모-자녀 관계 그리고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취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41권 제5호, 2007; 여유진, 「한국에서의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 경향에 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제28권 제2호, 2008; 신명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41권 제2호, 2010.
- 2) 박창남·도종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제22권 제1호, 2005; 연보라·장희원·김경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학업지원, 양육방식, 사교육 참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교육학연구』, 제19권 제3호, 2013.

으로 부각되면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녀의 시간사용의 차이가 주목을 받고 있다.³⁾ 다수의 연구에서 어린 시절 부모와 공유하는 시간이 많은 자녀일수록 문화자본(cultural capital)과 정서자본(emotional capital)이 함양된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와의 공유 시간이 많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국내외 연구결과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자녀의 시간사용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⁴⁾

특히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안정적이고 학력이 높을수록, 시간을 활용하는 데에 여유로움이 있고 그 속에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중요성도 인지되어 시간 배분에 있어 자녀를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주장되고 있다.⁵⁾ 그리고 이것은 학력이 높은 부모일수록 학령기 자녀의 학업관련 시간에도 많은 개입을 하

3) 송유진,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생활시간 비교」, 『가족과 문화』, 제25권 제3호, 2011; 김진욱·고은주, 「시간압박, 누가 얼마나 경험하는가?: 한국 기혼부부의 수면, 개인관리, 여가시간 결핍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제42권 제2호, 2015; 박정윤·전유진, 「부모관련변인이 청소년 자녀의 생활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6 공동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논문, 2016.

4) 송유진, 2011; Bianchi, S. M. and Robinson, J., “What did you do today? Children’s use of time, family composition, and the acquisition of social capita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9 No. 1, 1997; Sayer, L. C., Anne H. Gauthier and Frank F. Furstenberg Jr., “Educational differences in parents time with children: Cross national vari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66 No. 1, 2004; Craig, L., Parental education, time in paid work, and time with children: An Australian time diary analysis”,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57 No. 4, 2006; Bonke, J. and Esping-Andersen, G., “Family investment in children: Productivities, preferences, and parental childcar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009.

5) 송유진, 2011; Reay, D., “A Useful Extension of Broudie’s Conceptual Framework? Emotional Capital as A Way of Understanding Mother’s Involvement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The Sociological Review*, Vol. 48 No. 4, 2000.

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학령기 자녀의 학업관련 시간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들의 주 여가시간을 차지하는 인터넷 사용시간에도 관련이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여 현재 우리는 정보의 획득이 자산이 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자녀의 인터넷 사용형태 차이는 정보격차 개념과 연관이 있고, 결론적으로 정보로 야기되는 세대 간 불평등의 재생산이라는 시각에서 조명해 볼 수 있겠다.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행태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대부분의 경우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쳐 서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⁶⁾ 일부 국내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정보접근성 차이를 언급하며, 부모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약할수록 자녀 역시 정보접근에 취약하게 된다는 결론을 보여주며 ‘정보격차론’을 언급하고 있다.⁷⁾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개

6) 정재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실태: 생활시간 자료를 바탕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제24집 제1호, 2007; 송유진, 2011; Featherman, D. L. and Hausser, R. M., *Opportunity and change*, New York: Academic Press, 1978; Erikson, R., Goldthorpe, J., and Portocarero, L., “Intergenerational class mobility in three Western European societies: England, France, and Sweden”,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30 No. 3, 1979; Bourdieu, P.,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Lin N.,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Sewell, W. H., Hauser, R. M., Springer, K. W., and Hauser, T. S., *As we age: A review of the Wisconsin longitudinal study: 1957-2001 in K. T. Leicht(ed.).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Oxford, UK. Elsevier, 2004.

7) 정재기, 2007; 정재기, 2011.

입하는 시간과 관련한 자녀의 학업성취도 연구나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에 대한 연구는 이미 선행되었다.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정보접근성에 영향을 미쳐 아동·청소년의 정보격차와 더 나아가 세대 간 불평등의 대물림을 야기한다는 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특히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들이 보내는 생활시간 자체에 초점을 둔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외에서 다룬 소수의 연구들은⁸⁾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자녀들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차이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고, 국내의 연구들⁹⁾ 역시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 특히 교육수준에 따른 청소년들의 시간사용 차이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들의 대부분이 청소년의 독서시간, 컴퓨터 이용시간, TV시청 시간 등과 같이 특정행위를 한정지어 연구를 진행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¹⁰⁾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24시간을 청소년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며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더욱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간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를 두고 활용하고

8) Bianchi, S. M. and Robinson, J., 1997; Mullan, K, "Young people's time use and maternal employment in the UK",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60 No. 4, 2009; Wight, V. R., Joseph Price, Suzanne M. Bianchi and Bijou R. Hunt., "The time use of teenagers", *Social Science Research*, Vol. 38 No. 1, 2009.

9) 박민자·손문금,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와 관련된 생활시간 사용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제19권 제2호, 2007; 정재기, 2007; 진미정, 「가족구조에 따른 아동의 생활시간 비교」, 『가족과 문화』, 제20집 제3호, 2008; 송유진, 2011; 정재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행태: 생활시간조사의 활용」, 『한국사회학』, 제45집 제5호, 2011.

10) 정재기, 2007; 김우찬·이윤석, 「부모가 자녀의 TV 시청시간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TV 시청시간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1호, 2009; 정재기, 2011; Mullan, 2010.

구성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더욱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될 것이다. 부모의 자원과 여건에 따라 청소년들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청소년들의 시간사용 행태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행태와 학습행태를 살펴보고, 장기적 관점으로 청소년들의 시간사용행태의 차이가 정보와 자원의 이용격차와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불평등에 기인한다는 가정에 접근하려고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야기된 게임이나 인터넷 중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컴퓨터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사회적 불안이나 낮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학업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인 요인들¹¹⁾이 청소년들이 게임 또는 인터넷 중

11) 김혜원,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현상: 인터넷 중독의 원인과 관련변인분석」, 『청소년학연구』, 제8권 제2호, 2001; 이경남,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과 자기통제가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41권 제1호, 2003; 나은영·송상현, 「어린이의 인터넷 컴퓨터 게임몰입에 미치는 자기통제성의 매개역할과 어머니의 개발적 커뮤니케이션의 영향」, 『한국언론학보』, 제50권 제2호, 2006; 나은영·박소라·김은미,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유형별 미

독에 빠지게 되는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학교에서의 적응¹²⁾이나 대인관계 및 사회적지지¹³⁾ 등과 같은 사회적 자원과 관련된 요인들이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게 되는데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주를 이었다.

이와 같이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초창기의 대다수의 연구들은 인터넷 몰입 및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치중되어 있었다. 중독의 원인을 제시하고, 치료적 관점에서의 중독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써 부모와의 대화가 해결 방안으로 주로 제시되었다. 더욱이 청소년의 중독문제와 해결 방안 등에 있어 청소년의 개인역량에 초점을 두고 있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환경적 요인과 관련된 영향력에 대한 언급은 부재하였다.

이후 청소년 인터넷 이용에 관한 연구는 중독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전반에 대한 연구로 확산되었다. 다수의 연구들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유형을 분류하거나 청소년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인터넷 이용 유형의 차이 분석 등의 연구를 주로 진행하였다.¹⁴⁾ 하지만 이 시기의 연구들 역시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행태의 전반적인 유형의 분류에만 초점을 두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행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디어 이용약식과 적용」, 『한국언론학보』, 제51권 제2호, 2007.

12) 정보문화진흥원,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장기추적조사연구 2차년도』, 2005; 나은영·박소라·김은미, 2007.

13) Young, K. S. and Rogers, R. C.,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pathological internet use”,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1998.

14) 박소라, 「어린이의 인터넷 이용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9권 제4호, 2005; 박창남·도종수, 2005; 나은영·박소라·김은미, 2007; 신명호, 2010.

2000년대 후반부터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행태를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요소와 연결시킨 연구들이 시작되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인터넷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한다는 연구¹⁵⁾와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컴퓨터 이용 양상에 차이를 야기한다는 연구¹⁶⁾가 대표적이다.

2. 청소년의 학습 행태

청소년의 학습행태와 관련된 연구는 학교 내 교육보다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지배적이다. 청소년 사교육과 관련한 연구들은 대부분 Parkin의 ‘사회적 폐쇄(social closure)’ 이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폐쇄 이론은 한 집단이 다른 집단들을 자원이나 기회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고등교육을 받은 부모들이 그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바탕으로 그들의 교육을 우위에 두는 사회적 폐쇄행위를 함으로써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높여간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⁷⁾ 즉, 고등교육을 받은 지배계층은 지위경쟁에 위협을 느끼고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녀에 대한 ‘방어적 교육투자’를 행함으로써 자신들을 차별화 시키려고 시도한다는 것이다.¹⁸⁾ 소득이 사교육에 영향을 주고, 이

15) 김은미·정화음,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격차에 대한 탐색」, 『언론정보연구』, 제43권 제2호, 2007.

16) 정재기, 2007; 정재기 2011.

17) 방하남·김기현, 「변화와 세습: 한국 사회의 세대간 지위세습 및 성취구조」, 『한국사회학』, 제35집 제3호, 2001; 홍두승·구해근, 『사회계층·계급론』, 다산출판사, 2001; 박창남·도종수, 2005.

것이 다시 자녀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고, 사교육이 세대 간 계층의 재생산에 중요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연구가 있다.¹⁹⁾ 또한 학교 외 교육이 가족환경과 매개변수로 작용하여 특히 영어 과목에서의 효과가 있음을 연구하였다.²⁰⁾

3. 청소년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소년의 생활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국내외에서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국외의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청소년의 학업과 교육행태와 관련하여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지위, 소득수준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²¹⁾ 국내 선행연구에 따르면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 및 소득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모의 교육수준은 자녀의 학습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자녀의 사회경제적 환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²²⁾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모의 높은 교육수준은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이게 되어, 이는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로 연결이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18) 방하남·김기현, 2001; 홍두승·구해근, 2001; 박창남·도종수, 2005.

19) 정영애·김정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교육, 그리고 학업성취와의 관계」, 『인문논총』, 제9집 제1호, 2002.

20) 이정환, 「가족환경, 과외, 성적」, 『한국사회학』, 제36집 제6호, 2002.

21) Blau, P. M. and Duncan, O. D.,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John Wiley & Sons, 1967; Featherman, D. L. and Hauser, R. M., 1978; Sewell, W. H., Hauser, R. M., Springer, K. W., and Hauser, T. S., 2004.

22) 방하남·김기현,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 -연령코호트간 변화와 학력단계별 차이」, 『한국사회학』, 제37집 제4호, 2003; 박창남·도종수, 2005.

자녀에 대한 교육 기대수준이 높아져 자녀 교육에 많은 투자를 야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정 내에 학습적 분위기를 형성하여 자녀에게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부여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녀들도 부모와 유사하게 높은 수준의 학습행태를 보이게 된다는 연구도 있다.²³⁾ 청소년의 학습행태에 있어서 아버지의 학력보다는 어머니의 학력이 더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있는데, 이는 자녀의 학습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관심과 개입이 더욱 강조되는 한국의 환경이 반영된 것으로 간주된다.²⁴⁾ 부모의 경제적 소득과 자녀의 시간사용행태와 관련된 연구는 기존연구에서는 대부분 사교육비라는 매개변수를 통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연구하였다.²⁵⁾

4.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청소년의 정보격차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일반적으로 보급된 1990년대 이후부터 대두되었다. 정보를 누리는 자들과 정보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 간의 정보격차는 사회경제적 자원의 차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정보격차와 관련한 다

23) 구인회·김순규,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족구조와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제4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2002; 신명호, 2010; 송유진, 2011.

24) 구인회·김순규, 2002; 정영애·김정미, 2002; 방하남·김기현, 2003; 박창남·도종수, 2005; 정재기, 2009; 정재기, 2011.

25) 이정환, 2002; 정영애·김정미, 2002; 김현주·이병훈·서우석, 「부모의 가족배경과 사회문화적 자원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2004; 노혁·도종수·김선애, 『빈곤층 아동의 복지권 조명과 사회복지실천 과제』, 지성과학조, 2004.

수의 연구들은 이러한 정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불평등의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지향점에서 시작되었다.²⁶⁾ 즉, 컴퓨터와 인터넷과 같이 인류에 도입된 새로운 기술들이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못하고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에서 연구들은 진행되었다.

정보격차 연구는 인터넷을 통해 최신정보를 이용하는 사람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구분하여 ‘인터넷 사용여부’와 ‘정보접근의 차이’에 초점을 두고 시작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상 컴퓨터가 보급되고,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됨으로써 더 이상 인터넷 사용여부와 정보접근에 대한 차이는 크게 유의미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인터넷의 보급화로 정보접근을 하는 대상에 대한 격차는 줄어든 반면, 또 다른 불평등의 기제로써 정보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양상에서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지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²⁷⁾ 성별에 따른 정보격차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나 연령, 소득, 교육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많은 연구들에서 언급하고 있다.²⁸⁾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정보격차는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한 형태로 발견된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부모의 사회경제

26) 서이종, 「디지털 정보격차의 구조화와 사회문제화」, 『정보와 사회』, 제2권, 2000; 김문조·김종길, 「정보격차의 이론적, 정책적 제고」, 『한국사회학』, 제36권 제4호, 2002; 최두진·김지희, 『정보격차 패러다임의 전환과 생산적 정보활용 방안』, 정보격차 이슈리포트 04-2,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 정재기, 2009; 정재기, 2011.

27) 정재기, 2007; 정재기, 2011.

28) 정재기, 2007; 정영호·이혜미, 「다면적 정보 격차의 변화와 그 요인: 2005년-2009년 시계열분석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247집 제3호, 2010.; 정재기, 2011; Van dijk, Jan A. G. M., “Digital Divide Research, Achievements and Shortcomings”, *Poetics*, Vol. 34, 2006.

적 지위는 청소년들의 정보격차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의 높은 교육수준은 청소년의 정보 활용능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청소년들의 정보지향적인 인터넷 활동으로 이어졌다고 연구들은 보고하였다.²⁹⁾ 반면,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녀는 오락지향적인 인터넷 활동을 선호한다고 하였다.³⁰⁾ 이런 선행연구결과들을 통해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가정환경, 가정문화, 양육방식 등의 차이가 자녀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정보격차는 청소년인 자녀에게도 계층 간 이동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¹⁾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2014년 실시한 생활시간조사 자료(Korean Time Use survey, KTUS)를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KTUS는 한국인들의 생활시간을 엄밀히 측정하기 위하여 이

29) 김은미·정화음, 2007; 정재기, 2007; 정재기, 2011; Koivusilta, L. L., Lintonen, T. P., and Rimpela, A. H., "Orientations in Adolescents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 Digital Divide by Socioeconomic Background, Educational Career, and Health",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35, 2007; Peter, J. and Valkenburg, P., "Adolescents' Internet Use: Testing the 'Disappearing Digital Divide' versus the 'Emerging Digital Differentiation' Approach", *Poetics*, Vol. 34, 2006.

30) 정재기, 2007; 정재기, 2011; Peter, J. and Valkenburg, P., 2006.

31) 정재기, 2007; 송유진, 2011; 정재기, 2011.

루어지고 있으며, 1999년 처음 수집된 이래 매 5년마다 시행되고 있다. 표본은 다단계층화집락표집법에 의해 추출된 전국을 대표하는 가구이며,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10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의 생활시간을 이들에 걸쳐 조사하고 있어서 한 가정에 소속되어 있는 부모와 자녀의 시간 행태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시간일지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특정 행동의 참여시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3세에서 18세까지의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소년의 시간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어도 한 명의 부모와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본의 성격을 동질적으로 만들기 위해 취업자 및 대학생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학업시간과 주 여가시간인 인터넷 이용시간이 평일과 주말은 상이할 것이란 판단으로, 주말을 제외한 평일 시간데이터만 활용하였다. 이러한 데이터 클리닝 과정을 통하여 총 1,602명의 청소년으로부터 수집된 3,204개의 생활일지를 통계청에서 제공한 가구원가중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 유효한 사례 수는 2,622명 이었다.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총 144개의 행동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2009년 자료에서는 3개의 무점포쇼핑(홈쇼핑, 인터넷 쇼핑) 항목이 추가되었으나, 2014년 자료에서는 이는 제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일관된 차이를 보이는 ‘컴퓨터·모바일 게임’과 ‘인터

넷 정보검색' 시간과 '학교 내 학업시간' 으로 학교수업과 학교자율학습시간을, '학교 외 학업시간' 으로 학원 수강과 기타 학교활동 외 학습을 포함시키고, '스스로 학습' 시간을 종속변수로 살펴보았다.

독립변수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모(母)의 교육수준' 과 '가구의 월평균 총 소득' 을 측정했다. 가구소득은 세금공제 전 지난 1년간 월평균 총 가구소득으로, 8분위로 구분되어 있는 소득을 월 500만원을 기준으로 저·고소득을 구분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부모교육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주로 사용하되, 어머니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나 어머니가 설문참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아버지의 교육수준으로 대체하였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교육을 중심으로 사용한 이유는, 대체적으로 어머니가 자녀와의 의사소통 빈도가 높고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가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일반적으로 불평등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성, 연령, 지역규모와 농가여부 등을 포함시켰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정보지향적인 인터넷·모바일 이용행태를 보일 것이다.

가설 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오락지향적인 인터넷·모바일 이용행태를 보일 것이다.

가설 3: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학교 외 학습행태를 보일 것이다.

가설 4: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학교 내 학습행태를 보일 것이다.

가설 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스스로 학습행태를 보일 것이다.

2. 연구방법

생활일지를 기준으로, 컴퓨터 게임이 10분 이상 보고된 일지는 60.2%였으며, 검색시간이 10분 이상 보고된 일지는 11.8%였다. 다시 말해, 40-90%의 사례에서 종속변수의 값이 0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관찰변수의 상당한 부분이 좌측에 집중되어 있을 때, 종속변수의 조건부 분포의 정규성이라는 일반최소자승법의 전제를 심각하게 위반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계수의 저평가를 막고 최소자승법에 비해 더 많은 분산을 설명할 수 있는 토빗(Tobit)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³²⁾

토빗 모형은 비선형 회귀모형으로 종속변수의 일부분이 관찰되지 않고, 중도절단(censoring)되는 경우 사용하는 연구 분석방법이다.³³⁾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정보검색시간, 인터넷·모바일사용시간, 학습시간(학교 외, 학교 내, 스스로 학습) 등은 ‘시간’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0미만의 값을 지닐 수 없다. 또한, 다수가 0을 선택한 경우, 시간형태의 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닌 좌측 중도절단(left-censoring)된 비선형분포를 띄게 된다. 실제 본 연구 분석결과, 행위가 없었다는 의미인 0으로 관찰된 행위자 비율이 다수의 경우로 나타났다.³⁴⁾

32) Long, J. S., *Regression models for categorical and limited dependent variables*, Thousand Oaks: Sage, 1997.

33) 민인식, 『고급 패널데이터 분석 STATA』, 지필미디어, 2012.

34) 민인식, 2012; 박은영·김진욱, 「아동의 컴퓨터·모바일 게임시간과 부모영향요

토빗 모형에서는 ‘관찰되지 않은 잠재 변수지표 (unobserved latent variable index)’를 관찰 가능한 특징을 나타내는 설명변수의 선형함수로 표시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관측 불가능한 잠재변수에 대한 설명변수들의 효과를 최대우도방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이용하여 추정하게 된다. 한 명이 이들의 시간일지를 보고하는 것을 감안하여 사례의 독립성이 위반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Robust Standard Error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TATA 1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토빗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IV. 연구결과

1. 분석자료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사용시간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어도 한 명의 부모와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13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 총 1,602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에 요약되었다.

인 연구: 2009년과 2014년 생활시간조사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51권, 2016.

〈표 1〉 2014년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인구사회학적 특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남		여		자녀합	
자녀	연령	13세	139	8.7	151	9.4	290	13.1
		14세	145	9.0	156	9.7	301	20.2
		15세	157	9.8	131	8.2	288	18.8
		16세	156	9.7	148	9.2	304	20.1
		17세	157	9.8	130	8.1	287	18.8
		18세	69	4.3	63	3.9	132	9.0
		총계	823	51.4	779	48.6	1602	100.0
	가구소득	저	544	34.0	537	33.5	1081	67.5
		고	279	17.4	242	15.1	521	32.5
		총계	823	51.4	779	48.6	1602	100.0
			아버지		어머니		부모합	
부모	연령	30대	36	2.0	222	10.9	258	6.4
		40대	1311	74.4	1654	81.2	2965	77.8
		50대	398	22.6	159	7.8	557	15.2
		60대	18	1.0	3	0.1	21	0.6
		총계	1763	100.0	2038	100.0	3801	100.0
	교육정도	고등학교 이하	838	47.5	1155	56.7	1993	52.4
		4년제 미만	309	17.5	422	20.7	731	19.3
		4년제 이상	616	34.9	461	22.6	1077	28.3
		총계	1763	100.0	2038	100.0	3801	100.0

구체적인 분석대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청소년 남녀의 비율은 51.4%, 48.6%였고, 가구소득은 자녀합 기준 저소득 가구는 67.5%, 고소득 가구 32.5% 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가 56.7%, 4년제 대학 미만이 20.7%, 4년제 대학 이상이 22.6%로 드러났다.

2. 분석결과

<표 2>는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 및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인터넷·모바일 이용시간과 학습시간의 평균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시) 여부를 기준으로 청소년들의 시간행태를 살펴본 결과, 소도시의 경우 인터넷·모바일 게임과 정보검색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학습행태에 있어서는 도시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농가여부 변이를 살펴보면 농가의 경우에 인터넷 이용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학교 외 학습은 비농가에서 2배에 가까운 평균시간(약 1시간)의 행태를 보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인터넷·모바일 게임에 여자청소년보다 평균적으로 약 4배 더 많은 시간행태를 보였으며, 여자청소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스스로 학습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정보검색 및 게임시간이 모두 증가하였고, 학교 내 학습시간은 16-17세 기준(고1, 고2)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외 학습시간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줄어들었고, 상대적으로 중학교 때 더 많은 시

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게임시간은 2배가량 줄어들었고, 학교 외 학습 시간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구 소득과 관련해서도 소득이 높을수록 게임시간은 줄어들었고, 학교 외 평균 학습시간은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표 2〉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인터넷 정보검색, 컴퓨터·모바일 게임)과 학습(학교 내 학습, 학교 외 학습, 스스로 학습) 행태
(평균시간 (단위: 분))

		정보 검색	인터넷· 모바일 게임	학교 내 학습	학교 외 학습	스스로 학습
대도시 여부	대도시	14.54	51.27	218.85	58.31	88.16
	소도시	15.91	57.03	201.94	52.18	88.63
	총계	15.21	54.09	210.56	55.31	88.39
농가 여부	농가	20.44	67.28	215.35	27.02	50.44
	비농가	15.07	53.73	210.43	56.08	89.43
	총계	15.21	54.09	210.56	55.31	88.39
성별	남	13.57	82.13	217.75	56.30	74.01
	여	16.95	24.42	202.96	54.26	103.60
	총계	15.21	54.09	210.56	55.31	88.39
연령	13	12.71	52.93	167.49	67.08	91.01
	14	15.00	59.69	171.78	68.61	87.49
	15	13.38	56.03	220.10	58.53	84.59
	16	15.97	47.10	250.14	51.53	95.07
	17	17.91	51.99	251.28	38.99	82.32
	18	17.59	60.37	193.24	36.39	90.77
	총계	15.21	54.09	210.56	55.31	88.39
부모 교육 정도	고등학교 이하	16.13	62.03	206.79	46.63	76.09
	4년제 미만	14.09	48.24	218.01	62.41	84.23
	4년제 이상	13.92	39.45	213.25	70.67	123.26
	총계	15.21	54.09	210.56	55.31	88.39
가구 소득 정도	저	15.52	60.07	208.34	46.60	80.80
	고	14.58	41.70	215.17	73.37	104.13
	총계	15.21	54.09	210.56	55.31	88.39

이러한 각각의 변수들의 효과가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토빗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토빗 추정결과, 전체 청소년 표본 1,602개 중에서 절단되지 않은 관측 수(life-uncensored)는 정보검색 988개(62%), 인터넷·모바일게임 711개(44%), 학교 내 학습 341개(22%), 학교

외 학습 712개(45%), 스스로 학습 564개(35%)로 중도절단 비율이 비교적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이는 본 연구결과의 토빗 분석이 유용함을 의미하고 있다.

분석의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인터넷·모바일 이용시간 중 정보검색 시간의 비중을 종속변수로 한 결과에서는 여학생일수록,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 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정보지향적인 인터넷·모바일 이용행태를 보일 것이다.]을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모바일 게임 시간의 비중을 종속변수로 한 결과에서는 농가일수록, 남학생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유의하였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와 관련해서는 부모의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 비중이 높아졌다. 다시 말해, 부모의 교육정도, 특히 어머니의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청소년들은 인터넷과 모바일 게임에 할애하는 시간이 높아졌고, 가구의 소득 역시, 높은 청소년들에 비하여 낮은 청소년들의 경우 게임을 하는 시간이 더욱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오락지향적인 인터넷·모바일 이용행태를 보일 것이다.]을 지지하고 있다. 즉, 청소년의 게임시간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청소년의 학습행태와 관련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습시간 중, 학교 내 학습 시간의 비중을 종속변수로 한 결과에서는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이는 [가설 4: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학교 내 학습행태를 보일 것이다.]를 지지하지 못하

고 있다.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청소년의 학교 내 학습행태와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시간 중, 학교 외 학습시간의 비중을 종속변수로 한 결과에서는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비농가에서 생활할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살펴본 결과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학교 외 학습에 보내는 시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가설 3: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학교 외 학습행태를 보일 것이다.]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청소년의 학교 외 학습 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습시간 중 스스로 학습시간의 비중을 종속변수로 한 결과에서는 비농가에 거주할수록, 여학생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유의미한 형태를 보였고, 부모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시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스스로 학습행태를 보일 것이다.]의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로써, 가설을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학교 외 학습과 스스로 학습 형태에 부모의 교육정도와 가구소득 등 부모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자본이 청소년의 학습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의 자본이 풍부할수록 학습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이는 청소년의 학습 습관 및 행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 컴퓨터 이용시간과 학습시간 따른 청소년 행태를 종속변수로 한 토빗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정보검색	인터넷·모바일 게임	학교 내 학습	학교 외 학습	스스로 학습
대도시여부 (대도시)	6.67(4.25)	5.59(5.28)	-15.22(8.29)+	-17/64(6.40)**	1.06(5.67)
농가여부 (농가)	-13.03(11.79)	-28.79(15.00)+	20.74(24.32)	51.28(20.56)*	41.02(17.59)*
성별 (남)	7.44(4.19)+	-95.94(5.47)***	-5.63(8.20)	6.94(6.31)	38.23(5.61)***
연령 (13-15)	4.58(1.33)**	-4.62(1.66)**	19.32(2.60)***	-32.08(2.11)***	-8.77(1.79)***
부모교육정도	-3.30(4.69)	-15.22(3.42)***	6.76(5.24)	14.75(3.98)***	27.38(3.55)***
가구소득	3.47(2.65)	-15.65(5.92)**	4.52(9.19)	34.90(6.98)***	12.13(6.26)+
chi2	19.77	369.09	63.51	320.64	164.53
R ²	0.0022	0.0223	0.0020	0.0189	0.0081
총사레 수: 1602	좌측절단 988	좌측절단 711	좌측절단 341	좌측절단 712	좌측절단 564

+p<.10 **p<.05 ***p<.001

* 괄호 안은 표준오차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 행태 및 학습 행태를 분석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청소년 자녀의 시간활용 행태의 차이가 세대 간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는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어도 한 명의 부모와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13세)부터 고등학교 3학년(18세)에 재학 중인 청소년 1,602명을 대상으로 토빗(Tobit)모형을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오락지향적인 인터넷·모바일 이용행태를 보인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일일 평균 인터넷·모바일 게임시간이 2배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母)의 교육정도가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 평균 게임시간은 62.03분인데 반하여, 교육정도가 4년제 이상인 경우 39.45분으로 큰 폭의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구소득정도가 높을 때 평균 게임시간이 41.70분이고, 저소득인 경우 60.07분으로, 이 역시 부모의 소득정도에 따라 자녀의 게임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학교 외 학습 행태를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모(母)의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정도에 높을수록 학교 외 학습 시간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의 교육정도가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 학교 외 학습 시간은 46.63분인데 반하여, 교육 정도가 4년제 이상인 경우 70.67분으로 증가하였다. 평균 학교 외 학습시간이 55.31분인 것을 감안하면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학교 외 학습시간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저소득 가구의 경우, 학교 외 학습 시간이 46.60분인데 비하여 고소득 가구는 73.37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청소년의 학습행태와 인터넷 이용행태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특히 모의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이러한 차이는 향후 세대 간의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불평등 재생산 기제가 개선되고 사회적 평등에 긍정적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 복지 실천적, 정책적 차원에서의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정보격차 완화를 위한 무분별한 인터넷 확장의 제재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인터넷 보급률이 99%에 달하는 한국의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인터넷·모바일 이용행태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더욱이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청소년들은 오락지향적인 인터넷 이용행태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인터넷·모바일 게임중독에 노출될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바이다. 2000년대 초반 무료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 보편화의 목적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완화에 있었다. 하지만 아무런 제약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된 인터넷 보급화는 결국 또 다른 양상의 불평등 양

상을 재생산했다고 할 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급속하게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에 다양한 정보들을 유용하게 체계화하여 활용하는 능력은 한 개인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 동일한 시간을 컴퓨터를 이용하는 데 할애하더라도, 게임행태보다는 정보검색행태를 보이는 청소년일수록 경쟁력을 지닐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인터넷 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유효하다면, 이는 정보를 검색하는 활용능력이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새로운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해, 단순히 인터넷을 통한 정보접근 차원의 제공이 아닌 보다 전문화된 정보 활용차원의 개입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둘째, 인터넷·모바일 게임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과 정책이 필요하다.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소년은 인터넷·모바일 게임시간에 약 2배에 가까운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 가정의 아이들일수록 게임중독에 노출될 위험성 역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중독예방관련 프로그램 및 정책은 정부를 기점으로 여러 민간단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게임중독 예방과 관리를 위한 개입은 청소년 개인만의 개입으로는 성과를 이루기에 역부족이다. 특히 취약계층 가정의 경우, 가정에 돌아갔을 때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개입해줄 자원과 네트워크가 부재한 경우가 허다하다. 가정의 특성에 맞추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정책이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취약계층 가정은 부모 등 보호자가 일을 나가 집을 비우거나 자녀의 생활에 개입하지 못하는 등의 생활양상의 특징으로 인해 자녀들이 게임중독에 빠지는 경향을 쉽게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³²⁾ 최근 스마트폰 중독 역시 저소득 가구의 청소년들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³³⁾ 본 연구결과와 더불어 이러한 연구들은 게임중독이 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질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그 예방책과 해결방안 역시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변인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경제적 지위간의 모바일 게임시간의 차이에의 초점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모바일 게임시간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최근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은 컴퓨터보다 더 활용도가 큰 매체이다. 하지만 아직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건전하게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에 대한 인식은 거의 부재한 상황이다. 학교에서 무작정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현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라 생각한다. 스마트폰의 순기능을 강화하여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무분별한 스마트폰 게임은 지양하고, 모바일 게임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32) <중앙일보>, 「[사설] 게임중독, 저소득층일수록 심각하다」, <http://news.joins.com/article/7200951>, 2012.01.25. (검색일: 2018.04.24.)

33) <연합뉴스>, 「스마트폰 중독 심각...과의존위험군 4년간 2배 급증(종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2/0200000000AKR201612120998000002.HTM>, 2016.12.12. (검색일: 2018.04.24.)

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교육 내에서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을 제안한다. 본 연구를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청소년의 학교 외 학습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교육이 세대 간 ‘사회적 지위’의 재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라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연구결과이기도 하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 저소득층일수록 사교육에 노출될 확률이 적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도 한 것이다. 사교육이 반듯이 학업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에 따라 학습경험의 차이가 야기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한국사회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 속에서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고도 질적으로 차별화된 사교육을 통하여 보다 서열이 높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도구로써 사교육이 이용된다. 부모들이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벗어나 좀 더 나은 삶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의 기회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결국에는 자녀의 학습행태에 대물림이 되고, 이는 더 나아가 청소년들의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머물게 될 것을 예상하게 된다. 이는 결국, 사교육 안에도 보이지 않는 이용대상자들 간의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모든 청소년은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되도록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발생하는 교육경험의 격차가 너무 크다면 그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지역사회 대학교의

대학생들과의 연계활동이나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모색하여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공교육을 제안해 본다.

참고문헌

- 구인회·김순규,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족구조와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제4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2002, 81-100쪽.
- 김문조·김종길, 「정보격차의 이론적, 정책적 제고」, 『한국사회학』, 제36권 제4호, 2002, 122-155쪽.
- 김우찬·이윤석, 「부모가 자녀의 TV 시청시간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TV시청시간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1호, 2009, 29-55쪽.
- 김은미·정화음,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격차에 대한 탐색」, 『언론정보연구』, 제43권 제2호, 2007, 125-161쪽.
- 김은정,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교육비, 부모-자녀 관계 그리고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취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41권 제5호, 2007, 134-162쪽.
- 김진욱·고은주, 「시간압박, 누가 얼마나 경험하는가?: 한국 기혼부부의 수면, 개인관리, 여가시간 결핍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제42권 제2호, 2015, 135-161쪽.
- 김현주·이병훈·서우석, 「부모의 가족배경과 사회문화적 자원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제1회 한국 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2004, 51-78쪽.

- 김혜원,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현상: 인터넷 중독의 원인과 관련변인분석」, 『청소년학연구』, 제8권 제2호, 2001, 71-117쪽.
- 나은영·박소라·김은미,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유형별 미디어 이용약식과 적용」, 『한국언론학보』, 제51권 제2호, 2007, 392-423쪽.
- 나은영·송상현, 「어린이의 인터넷 컴퓨터 게임몰입에 미치는 자기통제성의 매개역할과 어머니의 개발적 커뮤니케이션의 영향」, 『한국언론학보』, 제50권 제2호, 2006, 116-147쪽.
- 노혁·도종수·김선애, 『빈곤층 아동의 복지권 조명과 사회 복지실천 과제』, 지성과창조, 2004.
- 민인식, 『고급 패널데이터 분석 STATA』, 지필미디어, 2012.
- 박민자·손문금,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와 관련된 생활시간 사용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제19권 제2호, 2007, 93-120쪽.
- 박소라, 「어린이의 인터넷 이용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9권 제4호, 2005, 166-191쪽.
- 박은영·김진욱, 「아동의 컴퓨터·모바일 게임시간과 부모영향요인 연구: 2009년과 2014년 생활시간조사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51권, 2016, 77-103쪽.
- 박정윤·전유진, 「부모관련변인이 청소년 자녀의 생활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6 공동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논문, 2016.

- 박창남·도종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제22권 제1호, 2005, 281-303쪽.
- 방하남·김기현, 「변화와 세습: 한국 사회의 세대간 지위세습 및 성취구조」, 『한국사회학』, 제35집 제3호, 2001, 1-30쪽.
- 방하남·김기현,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 -연령코호트간 변화와 학력단계별 차이」, 『한국사회학』, 제37집 제4호, 2003, 31-65쪽.
- 서이중, 「디지털 정보격차의 구조화와 사회문제화」, 『정보와 사회』, 제2권, 2000, 68-87쪽.
- 송유진,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생활시간 비교」, 『가족과 문화』, 제25권 제3호, 2011, 31-53쪽.
- 신명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41권 제2호, 2010, 217-246쪽.
- 여유진, 「한국에서의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 경향에 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제28권 제2호, 2008, 53-80쪽.
- 연보라·장희원·김경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학업지원, 양육방식, 사교육 참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교육학연구』, 제19권 제3호, 2013, 99-122쪽.
- 이경남,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과 자기통제가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41

- 권 제1호, 2003, 77-91쪽.
- 이정환, 「가족환경, 과외, 성적」, 『한국사회학』, 제36집 제6호, 2002, 195-213쪽.
- 장상수, 「학력성취의 계급별·성별 차이」, 『한국사회학』, 제38집 제1호, 2004, 51-75쪽.
- 정영애·김정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교육, 그리고 학업성취와의 관계」, 『인문논총』, 제9집 제1호, 2002, 113-136쪽.
- 정보문화진흥원,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장기추적조사연구 2 차년도』, 2005.
- 정영호·이혜미, 「다면적 정보 격차의 변화와 그 요인: 2005년-2009년 시계열분석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247집 제3호, 2010, 228-261쪽.
- 정재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실태: 생활시간 자료를 바탕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제24집 제1호, 2007, 51-78쪽.
- 정재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행태: 생활시간조사의 활용」, 『한국사회학』, 제45집 제5호, 2011, 197-225쪽.
- 진미정, 「가족구조에 따른 아동의 생활시간 비교」, 『가족과 문화』, 제20집 제3호, 2008, 187-211쪽.
- 최두진·김지희, 『정보격차 패러다임의 전환과 생산적 정보 활용 방안』, 정보격차 이슈리포트 04-2,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
- 홍두승·구해근, 『사회계층·계급론』, 다산출판사, 2001.

- Bianchi, S. M. and Robinson, J., “What did you do today? Children’s use of time, family composition, and the acquisition of social capital” ,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9 No. 1, 1997, pp. 332-344.
- Blau, P. M. and Duncan, O. D.,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John Wiley & Sons, 1967.
- Bonke, J. and Esping-Andersen, G., “Family investment in children: Productivities, preferences, and parental childcare” ,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009, pp. 1-13.
- Bourdieu, P.,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 Craig, L., “Parental education, time in paid work, and time with children: An Australian time diary analysis” ,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57 No. 4, 2006, pp. 553-575.
- Erikson, R., Goldthorpe, J., and Portocarero. L., “Intergenerational class mobility in three Western European societies: England, France, and Sweden” ,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30 No. 3, 1979, pp. 415-441.
- Featherman, D. L. and Hausser, R. M., *Opportunity and change*, New York: Academic Press, 1978.
- Koivusilta, L. L., Lintonen, T. P., and Rimpela, A. H., “Orientations in Adolescents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 Digital Divide by

- Socioeconomic Background, Educational Career, and Health” ,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35, 2007, pp. 95-113.
- Lin N.,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 Long, J. S., *Regression models for categorical and limited dependent variables*, Thousand Oaks: Sage, 1997.
- Mullan, K., “Young people’s time use and maternal employment in the UK” ,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60 No. 4, 2009, pp. 741-762.
- Peter, J. and Valkenburg, P., “Adolescents’ Internet Use: Testing the ‘Disappearing Digital Divide’ versus the ‘Emerging Digital Differentiation’ Approach” , *Poetics*, Vol. 34, 2006, pp. 293-305.
- Reay, D., “A Useful Extension of Broudie’s Conceptual Framework? Emotional Capital as A Way of Understanding Mother’s Involvement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 *The Sociological Review*, Vol. 48 No. 4, 2000, pp. 568-585.
- Sayer, L. C., Anne H. Gauthier and Frank F. Furstenberg Jr., “Educational differences in parents time with children: Cross national variation” ,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66 No. 1, 2004, pp. 1152-1169.
- Sewell, W. H, Hauser, R. M., Springer, K. W., and Hauser, T. S., *As we age: A review of the Wisconsin*

longitudinal study: 1957-2001 in K. T. Leicht(ed.).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Oxford, UK. Elsevier, 2004.

Van dijk, Jan A. G. M., “Digital Divide Research, Achievements and Shortcomings” , *Poetics*, Vol. 34, 2006, pp. 221-335.

Wight, V. R., Joseph Price, Suzanne M. Bianchi and Bijou R. Hunt., “The time use of teenagers” , *Social Science Research*, Vol. 38 No. 1, 2009, pp. 792-809.

Young, K. S. and Rogers, R. C.,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pathological internet use” ,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1998, pp. 323-329.

<중앙일보>, 「[사설] 게임중독, 저소득층일수록 심각하다」 , <http://news.joins.com/article/7200951>, 2012.01.25. (검색일: 2018.04.24.)

<연합뉴스>, 「스마트폰 중독 심각...과의존위험군 4년간 2배 급증(종합)」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2/0200000000AKR20161212099800002.HTML>, 2016.12.12. (검색일: 2018.04.24.)

A Comparison of Adolescents' Internet Use and Learning Conduct Based on their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 Focused on Korean Time Use Survey of 2014

Kang, Sun-Kyung (Sogang Univ.)

Choi, Yoon (Sogang Univ.)

This study explores the influence of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on their adolescent children's internet use and learning conduct based on Korean Time Use Survey of 2014, under the assumption that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can function as a mechanism for reproducing inter-generational inequality due to the difference of their children's internet use and learning conduct. Upon reviewing the weekdays average hours of using internet per day for the students from the age 13, the first year of a middle school to the age 18, the third year of a high school, they spend 15 minutes for information search, and 54 minutes for computer or mobile games. They tend to spend 211 minutes for study in the school, 56 minutes for after school study, and 88 minutes for self-study. According to Tobit regression

analysis, the higher the students'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the bigger the total hour for self-study and after school study. On the other hand, the lower the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the bigger the total hour for their adolescents' internet or mobile game. The research shows that the lower the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the bigger the risk of their adolescent children's exposure to the addiction of the internet and mobile game. This implies that the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can function to reproduce the inter-generational inequality.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this study discusses the practical and policy level implications in social welfare for improving the inequality reproducing mechanism.

Subject: Social Welfare

Key Words: Adolescents' Time Use,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Inter-generation Inequality, Internet Addiction, Korean Time Use Survey